

Sermon 31st of July

Hosea(호세아) 11:1-11, Luke(누가복음) 12:31-21

한 주전 저는 오랫동안 꿈꾸어 오던 것을 실현했습니다. 제가 런던을 방문했던 동안 저는 마침내 템저강 남쪽 독에 있는 글로브 극장에 갈수 있었습니다. 저는 글로브 극장에서 셰익스피어 시대의 복제품인 셰익스피어 연극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약 600 명의 관객들과, 연극 동안 다른 많은 관객들은 서있어야 했고, 저는 “말괄량이 길들이기”공연을 보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Kiss Me Kate “케이트, 나에게 키스해주세요”는 뮤지컬 화려함을 이용한 전쟁 후 콜 포드의 해석입니다.

밤 10 시에 우리가 극장을 나왔을 때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극장 대부분의 장소는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밤은 따뜻했고 많은 사람들이 템즈강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더 샤드(The Shard)와 다른 새로운 높은 건물들은 강을 가로질러 동쪽에 반영되었습니다. 성 폴 대성당이 우리들을 가로 질러 돋보였어요. 성 폴 대성당은 그 날밤 은빛으로 밝아졌습니다. 한 동안 저는 가만히 서서 성 폴 성당 주위의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T. S. Eliot 에 의해 적혀진 ‘락 음악의 합창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 시는 1934 년에 적혀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그 시를 테스트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는 도시의 한때 삶을 나타냅니다 – 도시는 런던과 같이 경제의 중심, 세계적인 서방세계에서는 뉴욕의 월 스트리트와 같습니다.

성 폴 성당의 높이는 현재의 바빔, 통계들, 이자비율에 관한 이야기, 환율 그리고 GDP 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 시드니에서는 마틴 플레이스, 피트 스트리트, 그리고 매쿼리 스트리트를 합쳐 놓은 듯 합니다.

T. S. Eliot 는 불황에 대한 경고와 유럽전역에 걸쳐 점진적 증가인 테러의 독재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를 기록하며 그는 미신들(gods)로 묘사를 하지만 하나님(God)은 없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세속적인 성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 역사 중 하나님(God)을 떠난 사회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Eliot 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인간을 버린 것 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교회를 버린 것 입니까?” 우리는 Eliot 이 대면한 질문을 8월 9일 인구 조사 때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교는 무엇 인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첫 번째 선택으로 “no religion” 종교가 없다 라는 섹션을 받을 것 입니다.

그것은 딜레마 입니다, 그 긴장감은 많은 우리가족의 삶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고 –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딜레마는 우리의 친구 중 누군가가 “너는 아직까지 교회에 가니”, 그리고 그 강조가 작고 순수하게 들리는 단어인 “아직” 에서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잠시 멈추고 다시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가지만 교회를 보고 교회를 가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때 다시 딜레마에 빠집니다 – “교회”라는 용어는

헬라어에서 그 기원이 왔으며 그 의미는 “하나님께 속하다”는 의미입니다 –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이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어 집니다.

글로벌 극장을 나오던 그 날밤, 아름답게 세워진 성 폴 성당을 가로질러서 보고, 브릭스(Brexit) 걱정과 혼란으로 가득 찬 상태로 이 도시를 오고 가는 이들을 보며, T.S의 애가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계획한 도시의 비참함,

계몽된 인간 세대의 비참함,

너의 기발한 재주들은 미로에 배신당했다.

너의 적절한 발명은 수입에 의해서 팔렸다:

나는 너에게 손을 주었고 너는 그것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났고,

나는 너에게 말하였다, 끊임없는 헛소리를 위해서 한것이 되었고,

나는 너에게 나의 법을 주었고, 그리고 너는 수수료를 정하였고,

나는 너에게 입술을 주었고, 너는 다정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였고,

나는 너에게 마음을 주었다, 너는 상호간 불신 하였고.

나는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너는 단지 헛된 투기와 사려 깊지 않은 행동 사이를 번갈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은 책을 저술하고 그것을 출판하는데 종사하고.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읽지는 않고 수 없이 보고를 하고.

너의 읽을 것은 많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너의 빌딩은 많고,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아니다.

너는 주름진 지붕과 함께 석고로 된 집을 나를 위해서 지을 수 있겠니,
일요 신문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시는 이것보다는 훨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구약의 예언서들 중 하나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마치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예언자 호세아의 권위 있는
말씀 안에 잘 맞아 들어 갑니다.

1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2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4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물론 예언자는 BC 8 세기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현시대에 거의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세계는 힘있는 정치중의 하나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북쪽 왕국을 나타내고 그의
시대의 위대한 제국 아시리아 권력의 취약한 삶에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웨(하나님)안에서의 삶을 잊어버렸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 창조자와
그는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해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그들은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바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다른 신은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T. S. Eliot 시는 구약(히브리 성경)에 맞아 들어 갑니다. 그 부분은 예언자들에게도 양도 됩니다. 그러나 글로버 극장에서 나왔을 때 락 음악의 코러스를 묵상하게 하는 것은 호세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오늘 아침에 읽은 누가복음의 거의 현대적이고 동시대적인 시가 생각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런 주장은 당신에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은행원들은 없고, 보험회사들도 없고, 이자율에 대한 언급은 없고, GDP 에 대한 힌트도 없는 누가복음의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을 이야기 합니다. 네, 이 비유는 가족 상속에 대한 말다툼에 의해 야기 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 중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두 형제들 사이에서 동생의 권리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부인됨으로 증재자로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지는 것을 이야기 하시면서, 많은 물질적 소유들을 가지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 하십니다. 이 주제는 누가복음 전체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모든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부와 가난에 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와 가난은 전면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시작부분인 마리아의 노래 안에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난한자들은 좋은 것으로 충족되고 부유한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가난한자에게 전합니다. 그의 설교에서 축복받은 자들은 가난한자입니다 - 마음이 가난한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물질적인 가난한자가 복을 받고, 마태복음에서는 영혼이 가난한자가 복을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신 이유는 부자에 대해 비통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자들 당신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부자통치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찾는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이 부유한자들과, 잘 교육 받은 교회에게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복음들 중 어디에서 돈을 언급 하나요, 다른 복음서 중 화폐를 언급하는 복음서는 꽤 신중합니다 -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더 큰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황금 비자 카드를 가지고 오십시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 하는 방법은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 에게 가난한자들을 돌보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부를 현명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누가 복음의 주요 주제입니다.

이것의 강조는 데이비드 셰펠드(David Shepherd) 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옛날 그는 영국 크리켓팀 선두타자로서 호주에서도 경기를 하고 그 후 그는 영국 리버풀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머지사이드(Merseyside)주는 산업재해 지역이었고 영국은 마가렛 대처 정책에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주교는 몇 가지 공공선언에 가난한자들과 가장 약한자들을 위한 근심을 표현하였습니다; 마가렛 대처는 그를 공산주의자로 고소를 하였고 그리고 그의 말은 단지 누가복음을 읽었을 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부자 비유와 Eliot 의 다른 점은 그때의 상황이 시골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농작물들을 기르고; 물론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균형 있는 집이나 또는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세계는 도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농업세계와 시골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그의 곡식들과 물건들을 둘 수 있는 더 큰 헛간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수행 하신 곳인 갈릴리는 시골이지 큰 도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종말은 염소와 양의 구분을 포함하고; 그것은 수확(알곡과 가라지 비유)과도 같은 것 입니다. 누가복음에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만약 누가복음서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갔다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도시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방법으로, 저는 T. S. Eliot 시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 폴 성당과 도시, “말괄량이 길들이기” 연극을 뒤로하고 글로브 극장을 나와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서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Eliot 의 시가 아직까지 울러 퍼지는 시대와 장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우리의 TV 뉴스는 환율과, 주식 시장이 무엇을 하는지 달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선거 기간은 자주 경제성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삶의 방법은 물건들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구성됩니다: 가치는 종종 재정적인 관점에서는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언어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어떤 종류의 나쁜 형태로 묘사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버려졌습니다, 여기의 테러와 저기의 성희롱 행위.

이 모든 오고 가는 것 중에도 예언자 호세아는 주님께로 돌아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우리의 삶은 변화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다는 것은 많은 압박과 경쟁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생태계의 두려움, 의심, 무관심의 습관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정 부유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우리의 사회가 많은 유지와 안정의 시스템을

만드는 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교회), 부유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동정의 공동체; 자비의 공동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초청합니다. 그것은 GDP 나 은행잔고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그들의 믿음과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불확실해하고 두려워하는 시기에 GDP 와 은행잔고가 측정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린필드 교회는 성 폴 성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린필드 교회는 셸리 머리(Shirley Murray)의 “그리스도의 생활방식(lifestyle of Christ)” 찬송가 처럼 삶을 추구하는 등불이 될 수 있고, 상징(icon)이 될 수 있습니다.